

스마트 농생명 벨리 실현

전북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모사업 최다 선정 전국 15개소 중 도내 4개소 선정·국비 48억 확보

전북도는 '2020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전국 최다인 4개소가 선정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48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APC : Agriculture Products Processing Center)은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집하·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보안 사업이다.

농식품부의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4개소(김제시, 익산시, 완주군, 부안군)가 선정, 국비 4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국비 12억원 보다 4배 증가한 것으로 전국 15개소의 국비 175억원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예비 신청된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기본요건을 검토하고 사업타당성 컨설팅 등을 철저히 준비해 일류농업 성과로 분석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김제 농산(20억원), 익산 KKM영농법인(33억원), 완주군(36억원), 부안마케팅영농법인(6억원)에 총 95억원이 지원된다.

김제 농산은 기존 APC 시설 내 저온저장고 증축, 소포장 자동화라인 등 현대화된 설비를 갖추어 파프리카 2,500여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완주군은 현재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공간이 부족하고 처리물량 한계로 용진읍 일대에 전처리장, 물류창고 등 푸드플랜 APC를 신축할 예정이다.

익산 KKM영농법인은 기존 APC 노후시설 보완과 고구마 세척·건조기를 들여 하루 최대 30톤 처리능력을

갖출게 될 것이며 부안마케팅영농법인은 수박 비파과산별기 설치를 통해 상품화 가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전북도는 현재 30개소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시설을 통해 연간 130천톤의 유통 농산물을 상품화하고 있으나, 이는 전국의 7.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2년까지 32개소로 확대하여 주산지별 품목 특성에 맞게 규모화되고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30.9% 수준인 주요 유통농산물의 산지유통시설 경유율을 2022년까지 40% 이상 높인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확충되면 농산물 물류 효율화와 규격 포장화로 상품성이 크게 개선되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북도의 삼각농정 농생명벨리를 대표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 시군 균형배분 회의

전북도 생활체육대축전 추진단(단장 김명민)은 9일 대축전 경기장 시·군 균형배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내년에 개최되는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목별 경기장 시·군 균형배정 기준 등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시·군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기 위해 열렸다. <관련기사 16면>

김승환 교육감, 전국체전 전북대표 선수단 격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표선수단 격려에 나섰다. 김승환 교육감은 9일 오후 전주영생고등학교를 방문해 축구와 태권도 선수단 및 지도자를 격려했다. 이어 10일에는 정병익 부교육감이 전북제일고등학교를 찾아 핸드볼과

일일이 안아주면서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 자신이 가진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달라"며 "이기는 체육에서 즐기는 체육으로", "경쟁이 아닌 즐기는 경기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0일에는 정병익 부교육감이 전북제일고등학교를 찾아 핸드볼과

펜싱 대표팀을, 11일에는 김국재 교육감이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배구 대표팀을 각각 격려 방문한다.

한편 오는 10월 4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일원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3만여 명이 참가한다. 전북교육청에서는 육상외 44개 종목에 고등학교 학생선수 총 52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 본격 돌입

스마트 그린 에너지·자동차 융복합 산업 메카로 조성

내년 상반기 최종 결론... 군산 산업위기 돌파구 기대

전북도가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위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섰다.

도는 9일 군산강소특구 유치 요청서를 과기정통부에 정식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최종 지정을 목표로 유치활동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군산 강소특구가 지정되면, 매년 수십억원의 안정적인 국비지원과 국제·지방세의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관련기업과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활동이 용이해져 군산경제 회생의 새로운 심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 강소특구는 군산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지역소재 6개 연구·지원기관이 참여하며, 새만금산업단지과 군산국가산업단지 중 1.95km 배후공간으로 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들 지역에 집중 지원할 특화분야를 자동차, 풍력, 태양광 등 세·지방세의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관련기업과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활동이 용이해져 군산경제 회생의 새로운 심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 강소특구의 장점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과 함께 항만, 철도

의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 완성이 기업 활동이 용이하고, 새만금 주행사설과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 등으로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개발 실증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기술 사업화하기에 최적지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난해 5월 과기정통부에서 새로운 개념의 연구개발(R&D) 특구 모델을 발표한 데 따라, 전북도는 발 빠르게 TF를 구성해 군산시와 함께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강소특구는 전국을 20km를 총량으로 한정하고 있고, 1개 특구당 최대 2km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이미 상반기 4개 시도의 6개 지역 4.1km가 지정된 바 있어 전국 지자체의 경쟁이 뜨거워 상황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추석명절 희망법률상담 특별 운영

전북도가 추석명절 기간 무료 희망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도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추석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무료 희망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기간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일평균 1032건으로, 이는 평일 일평균 683건에 비해 50%가 넘는 수치

다. 추석명절 희망법률상담은 긴급하게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도민이 도청 법무행정과(063-280-2921)로 전화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변호사를 연계해 무료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도는 일상 속 도민들에게 무료 희망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명을 상담관으로 위촉하고 월 4회(매월 첫

째·셋째주 수요일-주간,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야간)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갈수록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해마다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8월말 현재 17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긴급히 법률상담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이 법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청년 농업인 성공 신화, 오색빛깔 전빵 매력에 흠뻑

'슬지제빵소' 김슬지 대표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선정



전북도는 농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이달(9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으로 부안군 '농업회사법인(유) 슬지제빵소'의 김슬지 대표가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김슬지 대표는 전빵은 어른들의 간식이라는 편견을 깨고 젊은 소비층에 다가가기 위해 질 좋은 국산재료와 특허제조 방법으로 오색전빵·크림치즈전빵 등 다양한 전빵을 개발했다. 우리밀, 팥, 소금 등 100%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고 지역농가와 동반성장하는 슬지제빵소는 국내 유명 제빵프랜차이즈 및 해외 진출에 성공하여 지난해 철담산업진흥을 수여받은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이룬 대표적 청년농업인 성공모델로 자리 잡았다. 슬지제빵소는 2대가 함께하는 바른

먹거리 기업 성장을 목표로 전통 발효기술을 계승하고 빵류·양류 HACCP 인증을 획득하여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제조공정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고 우리밀 빵, 발효소금 만들기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대표는 발효종·발효액·누룩 등을 활용하고 받아낸 팔에 빵잎을 가미해 영양을 배가 시킨 기능성 팔양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제조특허를 취득했다. 아울러 팥양금·팥말 등 단순가공 제품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으로 간편식 디저트를 개발하는 등 국산 팥 부가가치 향상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슬지제빵소는 유명호텔·제빵프랜차이즈 등에 납품, 연매출 약 9억 원의 성과를 올리며 TV·언론·경연대회 등에 자주 소개되는 등 지역 소규모 경영체로서 큰 성장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부터는 온라인 판매(스토어팍·자사쇼핑몰 등)로 판로 다변화를 시도했고 직영 판매점을 추가 개설하는 등 제품 브랜드 강화에 노력 중이다.

김 대표는 2004년부터 매주 부안 송산효도마을에 전빵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학재단에도 매월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과 상생해왔다. 또한 제조과정 연계 체험시설을 구축하고 농생명산업 진로 체험, 품소소금을 이용한 발효소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난해 약 7만 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업회사법인(유) 슬지제빵소는 기업승계를 통해 우리밀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고, 농가협력을 위한 상생노력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경영체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통 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 농촌융복합산업인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